

사회

Social Affairs

7 광주일보
제17613호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300억 불법송금 환치기

광주세관, 조직 총책 등 4명 적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태영)은 일본 나리타시를 주무대로 30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 대행업을 한 환치기 조직총책 손모씨 등 4명을 적발했다. 이중 일본으로 도주한 손씨는 지명수배 조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는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손씨는 지난 2004년 10월1일부터 2005년 10월11일까지 한화 301억원 상당의 엔화를 나리타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집해 나리타 공항과 인천 국제공항을 왕래하는 전문 보따리상인 운반객 전모씨를 통해 밀반입해 환화로 환전했다.

손씨는 관련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분산, 20여 개 환치기계좌에 입금한 뒤 국내 수취인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학위·기술력 맞는 대우 못받는다” 냉각탑 기술 中 유출 기도

병역특례로 냉각기 제조 업체에 근무했던 광주 출신이 회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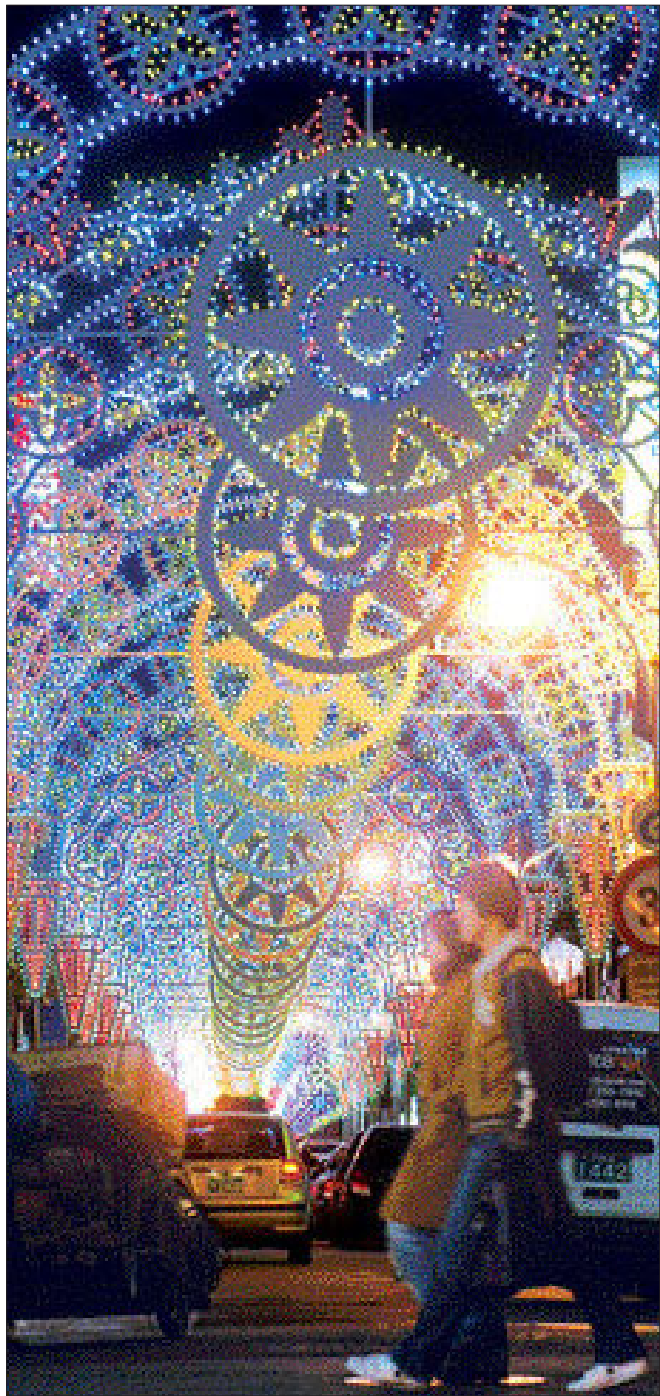
광주 모 공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M(30)씨는 지난 2000년 인천에 있는 냉각탑 제조업체인 ‘경×기계’에서 일을 했다. 군대를 가는 대신 전문연구원으로 5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M씨는 이곳에서 냉각탑 프로펠러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2년째 되는 해, M씨는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의가사(依家事) 제대를 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기로 했다. M씨는 이때부터 군인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었지만, “내 학위와 기술력에 맞는 대접을 못받는다”고 생각했다. 월급과 복지 혜택도 상대적으로 일반 직원과 차이가 많았다.

양심을 품은 M씨는 지난 2004년 회사를 그만두고, K기계의 협력사인 중국 절강성(浙江省) ‘금×제빙’을 찾아갔다. 프로펠러 제조 기술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3만 달러(3천만 원 상당)를 요구했다. 또 제품이 만들어지면 해당 2%의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M씨는 경찰에서 “중국에 놀러간 것이 기술 유출을 알리지는 않았다. 돈을 받지 않았고” 주장을 폈지만, 대질심문 끝에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27일 M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에 설치한 ‘루미나리에’(luminarie·전구를 이용한 조명건축물)가 27일 준공식 후 환한 빛을 내뿜으며, 행인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다. 동구청은 ‘제 3회 광주충장로 축제’ 기간인 지난 10월20일부터 4여여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의 거리’ 300m 구간에 ‘루미나리에’를 세웠고, 매일 오후 5시40분부터 자정까지 점등할 계획이다. 이곳 ‘루미나리에’는 지주가 31개, 전구는 7만5천640개에 달한다. ‘루미나리에’를 점등하는데 드는 한 달 전기 요금은 22만여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닭고기 급식 충분히 가열하라”

광주시교육청, 위생관리 당부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전북 익산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 급식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조리할 때 음식 온도가 74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하고 일선 초·중·고교에 27일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식재료 검수와 전(前) 처리 및 조리 시 가금류가 다른 식재료나 식기구 등에 섞여 병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들에게 식사 전 및 외출 귀가 후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급식 식단은 한 달 주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식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열로 조리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지 않고 평소처럼 학교 급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학교에 당부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이동통신 4천만대 시대의 ‘그들’

“휴대폰 손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중학생 김모(15·광주 C중학교 2년)양은 최근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며 부모님께 털어놨다. 친구들에게 오는 ‘답문’(휴대전화로 보내는 답장 문자메시지)을 보낼 수 없어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다.

김양은 “한 달에 2천200개의 문자만 보낼 수 있는 월 1만6천원짜리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름도 채 안돼 바닥이 난다”면서 “친구에게 답장을 못 보낼 때는 답답하고 초조해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말했다.

휴대전화·MP3플레이어·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가 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기기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이른바 ‘디지털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본보가 지난 5월 광주과학고와 전남과학고 신입생 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자의 77.4%(65명)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53.8%(35명)은 매일 5통 이상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전대신문’ 등이 전남대 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는 하루 700건을 발송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하루 평균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45건이었다.

고장이나 분실 때 불안·초조·우울증... ‘디지털 중독’ 심각

학부모 이모(42·광주 동구 운림동)씨는 “공부방을 너무 어질러 놓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딸이 극심한 초조감과 불안 증세를 보이자 다시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사원 조모(여·26)씨는 아침 출근길마다 ‘MP3플레이어’만은 꼭 챙긴다. 문단속은 압박감 지라도 MP3플레이어는 항상 목에 걸고 다닐 정도다.

조씨는 매일 아침 버스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회사까지 가는 도중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에 집중한다. 조씨는 “아침에 음악을 안 들으면 하루 종일 일도 안 풀리고 엔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통부의 청소년 휴대전화 활용실태를 조사에서는 3명 중 1명꼴로 “휴대전화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 “걸어다니면서도 전화 화면을 본다”고 답하는 등 상당수가 ‘디지털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방치하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우울증·수면장애·극단현상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에 너무 빠져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경우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대 병원 김상훈 교수는 “(이런 현상은) 일종의 새로운 중후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원침 (6987) 김동주



평준도시의 중심 특권을 누리려는 3,636 회대단지!
평면적: 40~45평, 45~50평, 50~55평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 062-367-9000

심야 식당 고품질 털다 멀미

순천경찰은 지난 26일 새벽 1시10분께 순천시 인제동 강모(41)씨의 식당에서 들어가 고품질을 훔치려한 조모(32)씨를 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미비자 발급용 문서 위조 일당 적발

○서울 방배경찰은 27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브로커 윤모(56)씨를 구속하고 위조 담당 차모(49)씨와 의뢰인 4명을 불구속 입건.

○윤씨 등은 2002년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에 차려 놓은 사무실에서 비자 발급 자격이 안 되는 30여 명으로부터 1명당 700만~1천만원씩을 받고 의뢰인 명의의 회사 재직증명서와 소득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

○경찰은 사무실에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압수했으며 윤씨에게서 “1천 명 이상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의뢰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 /연남스

좋은 시골, 좋은 여생 - 신촌은 여행과 함께 휴식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신촌은 유채밭과 사과밭이 가득합니다.)

한국/일본	동남아	미주/대양주/유럽
<p>300,000+</p> <p>360,000+</p> <p>360,000+</p> <p>699,000+</p> <p>520,000+</p> <p>549,000+</p> <p>540,000+</p> <p>690,000+</p> <p>890,000+</p>	<p>749,000+</p> <p>709,000+</p> <p>899,000+</p> <p>849,000+</p> <p>709,000+</p> <p>509,000+</p> <p>599,000+</p> <p>539,000+</p> <p>649,000+</p> <p>709,000+</p>	<p>1,390,000+</p> <p>1,200,000+</p> <p>1,300,000+</p> <p>2,400,000+</p> <p>2,000,000+</p> <p>1,800,000+</p> <p>1,690,000+</p> <p>1,500,000+</p> <p>1,800,000+</p> <p>1,500,000+</p>

Call Center: 899-0000, 899-5000, 749-0000, 700-0000, 1-800-7000